

“가족끼리 젓돈 모아 여행갔는데”...여수 일가족 4명 날벼락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잠사라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겁니다”, “여자들이만 해외여행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가족은 3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슬픔과 분노,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고자 중 광주·전남 지역민은 여수에 거주하는 김모(50)씨 모녀와 친인척 등 여성 일가족 5명이며, 현재까지 황모(여·50)씨만 유일하게 구조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피해자들의 노부모와 배우자 등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로 서울역 KTX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떠났다.

KTX에 탑승하기 전 황씨의 아들은 “엄마와 고모들이 젓돈을 모아 유럽여행을 간다며 떠들던 모습이 오늘 일처럼 선명하다”면서 “유람선 참사 소식을 접하고 설마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까 걱정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 가족은 여수와 인천

여수·인천서 떨어져 지냈지만 자매·올케간 평소 우애 돈독

“유럽여행 들떠있던 모습 선명 실종 믿기지 않는다” 비통

등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평소 자주 만나 정을 나누는 등 돈독한 우애를 자랑했다는 게 주변사람들의 말이다.

수개월 전부터는 김씨 자매 3명(50·45·42세)과 올케 2명 등 5명이 의기 투합해 여성 가족끼리만 첫 외국여행을 가보자며 계획을 만들어 돈을 모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수차례 논의 끝에 예전부터 꿈꿨던 동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로 의견을 모으고 8박 9일 일정으로 예약을 했다.

하지만, 출발을 앞두고 올케 중 1명이 개인사로 갑자기 여행을 불참하게 되면서 자매 중 첫째의 딸인 김모(21·부산외국어대학교 2년)씨가 대신 합류하게 됐다. 가족들은 올케의 불참을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영어에 능숙한 김씨가 여행에 동행한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해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5일 고대하던 유럽 땅을 밟았고 4일간의 꿈 같은 여행일정도 함께 보냈다.

비보가 들려온 건 지난 29일 밤 9시(현지시간)께. 김씨 가족을 포함해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야니’(헝가리어로 ‘인어’) 유람선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한 것이다.

여수에 있던 김씨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급히 김씨 등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여행사가 발표한 생존자 명단에도 황씨의 이름만 있을 뿐 김씨 자매 3명과 딸은 ‘실종자’ 19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딸과 함께 실종된 김씨는 3남매를 둔 다둥이 엄마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씨 가족들은 “(김씨의) 5살 막내 아들이 이날 무언가를 직감한 듯 종일 ‘엄마’와 ‘큰 누나’를 찾으며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꼭 살아 돌아와 예전처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며 울먹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30일 헝가리 소형 구조대원들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유람선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야니’.

길이 27m 소형선 ...로이터 “1949년 구 소련서 건조”

침몰한 유람선은

한국인 30여명을 태우고 침몰한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야니’(헝가리어로 ‘인어’)는 길이 27m의 소형 선박이다. 최대 탑승 인원은 60명이며, 관광용 크루즈로 이용될 때는 45명이다.

허블레야니 소유 회사인 ‘파노라마 데크’(Panorama Deck)는 회사 홈페이지에 12척의 보유 유람선을 소개하면서 가장 작은 선박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허블레야니가 넓은 테라스를 갖고 있어 부다페스트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에 좋고 소규모의 가족 행사에 적합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중 갑판의 허블레야니는 통상 강 유람에 이용되고 있으며, 150마력의 엔진을 갖

추고 있다. 일반 소형 유람선처럼 아래층에는 비바람이나 햇볕을 피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탁 6~7개와 그에 딸린 의자가 놓여 있고, 위로는 옥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 측은 2003년 운항을 시작한 허블레야니가 사고 당시 기술적인 문제를 가졌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받았다고 현지 방송에 설명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은 선박등록(Hajoregiszter.hu) 현황에 따르면 허블레야니가 본래 1949년 옛 소련에서 건조됐으며 1980년대에 헝가리제 새 엔진을 장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선박 등록소나 선박 운영사 측으로부터 설명에 대해 코멘트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가족 단위·남녀 커플 등 9개 그룹 탑승

유람선 탑승자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 유람선에는 가족 단위 등 9개 그룹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잠잠은여행사가 공개한 고객 명단을 보면 사고 선박에는 최연소 김모(여·6)양부터 최고령 석모(71) 씨까지 총 30명의 관광객과 인솔자 이모(여·35)씨가 탑승했다. 이 명단은 여행사 측이 관리하는 인원으로 개별적으로 탑승한 현지 인솔자, 선장, 사진작가 등은 제외됐다.

유람선 탑승 명단을 예약코드별로 나뉘는 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한 그룹으로 묶였다. 같은 예약코드를 부여받았다면 함께 여행을 신청한 것으로 가족 혹은 지인 관계로 추정할 수 있다.

전남도·여수시 “피해 가족 여권 발급 등 최대한 지원”

전남도와 여수시는 “30일 새벽 4시께(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민들의 가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이들이 헝가리로 가길 원할 경우 여행사 등과 함께 여권 발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항공권 및 숙소 확보를 적극

이 가운데에는 부부 혹은 연인 사이로 추정할 수 있는 남녀 2인 그룹이 4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3인 그룹 1개, 4인 그룹 2개, 5인 그룹 1개, 6인 그룹 1개였다. 한 4인 그룹은 조부모와 손녀, 딸 등으로 구성됐는데 모두 실종됐다. 어린이,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3대가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것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탑승객은 상대적으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았다. 인솔자 이씨를 제외한 탑승객 3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명이 50대 이상이었다.

성별로 보면 21명이 여성, 9명이 남성이었다. 잠잠은여행사 관계자는 “유럽 패키지 여행은 일반적으로 60대와 여성이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6살 손녀딸·조부모 등 등 3대 비보에 침통

유람선 참사 이웃들 표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6살 손녀딸과 조부모를 포함한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승객 중 가장 어린 A(6)양과 어머니 B(38)씨는 할아버지 C(62)씨와 할머니 D(여·60)씨를 모시고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다.

이들 가족은 미추홀구 한 빌라 3층에 함께 살며 오손도손 가정을 꾸려왔다고 한다. B씨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부모와 함께 어린 딸을

돌봤다. 그는 평소 손녀를 함께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큰 고마움을 느꼈고, 올해 환갑을 맞은 어머니의 환갑선물로 해외 여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부부는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아 주민들에게 장구를 가르치는 등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게 이웃들의 말이다.

평소 C씨 부부와 왕래가 잦았다는 이웃 주민은 “D씨가 올해로 환갑인데 그래서 여행을 떠났다가 싶다”며 “지나던 주에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합뉴스

문화재 지정된 섬 침입하고 영해선 넘고...도 넘어 낚시배들



○... 낚시영업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침입하거나 영해선을 넘는 등 도를 넘어 낚시배 선장들이 잇따라 해경에 입건.

○...3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 50분께 문화재로 지정된 여수시 하백도 해상에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시배(3t) 선장 A(48)씨와 낚시꾼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는 것.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께 목포해경은 신안군 흥도 인근 해상에서 영해를 1.1km 벗어난 채 낚시배를 운항한 선장 B(53)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는데, 해경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200m 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들어갈 수 없고 영해선을 벗어나 영입하면 최대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야 단독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복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은 5억8천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항빌딩 중의 2층 25㎡ 과밀증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 가 건 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착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 급 물 건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김평가 50%. 해남군 신이면 금송리 대지 17518㎡ 주택 2건평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 간 오후 3시 ~ 6시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 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정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